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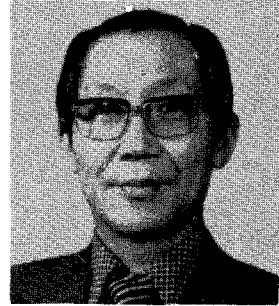
---

# 월간양계의 어제와 오늘

---

오 봉 국

서울농대교수, 농학박사  
한국가금협회회장 역임



「월간양계」가 발간된지 14주년을 맞이하여 창간 당시 발행인이었던 나에게 소감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붓을 들고 보니 벌써 14년의 세월이 흘렀다는데 세월의 빠름을 새삼 실감하게 되고, 창간 당시를 회상하니 감회가 무량하다.

## 월간양계의 발간 동기

당시 나는 양계협회의 전신인 가금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을 때였다. 협회의 중요사업중의 하나가 매월 “월례강습회”를 개최하여 양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양계 전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을 갖는 일이었다. 이 모임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는데 양축가들이 멀리는 충남지역과 춘천지방에서도 참가했고 모이는 사람은 양계업자 뿐만 아니라 관련업체인 사료, 제약, 기계, 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많이 참석하였다.

멀리 지방에 있는 회원을 위하여는 1년에 한번씩 지방 순회강습회를 통하여 양계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는데 지방에 있는 양계업자들은 도단위에 양계협회지부를 설치해 놓고 서울·경기지역 사양가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 하여 불평이 대단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양계인들 중에는 월례강습회도 좋으나 양계잡지를 발간하여 전국에 있는 양계인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보급과 양계시장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히 전달하여 양계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당시 양계업계에는 부화협회와 가금협회의 두 단체가 있었으나 잡지 발간의 필요성은 다 같이 느끼면서도 이에 필요한 엄청난 재원 마련이 어려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협회중진급 인사와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나 실통한 묘안이 없었다.

## 월간양계의 태동

지금까지 협회가 쌓아 올린 회원간의 두터운 친목과 협조, 그리고 협회가 닦아놓은 업계에 대한 신용 등이 밑거름이 되어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고 이사회에서 잡지 발간을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잡지는 무상으로 하되 광고찬조로 경비를 조달하기로 하고, 광고주에게는 찬조금에 해당되는 물량을 잡지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 방법은 그간 협회가 “육추일지”를 만들어 수입을 꾀하던 방법으로, 잡지를 공급받은 업체에서는

자기 물품을 사가는 양계업자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형식의 잡지 보급방식이었다. 협회 회원 뿐 아니라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양계인도 받아볼 수 있는 일거양득(一舉兩得)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방안이 성사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즉 일부에서는 「아이디어」는 좋으나 “육추일지”는 연 1~2회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나 매월 광고비를 내라면 과연 업체에서 호응 할 것인가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

잡지발간을 위한 사업추진비용으로 우선 3개월간의 비용인 100 만원을 모금하기로 하고, 먼저 협회이사로 있는 부화·종계업체로 부터 금액의 다과는 불문하고 3개월간의 광고 협조를 얻기로 하였다.

불행하게도 1968~1969 년도는 생산과잉으로 양계업계가 불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선뜻 낼 수 있는 업체가 그리 많지않아 협회의 큰 「스폰서」는 역시 사료업체와 제약업체였다. 회장단과 이사들은 각자가 협조가능한 업체를 방문하여 광고찬조를 받기로 하고 한달동안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방문업체 마다 선뜻 3개월분의 광고 선금(先金)을 내 놓으려 들지 않았다. 어떤 회사에서는 “책을 가지고 와야 돈을 주겠다”

“돈 없이 하는 잡지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등 여러가지 말도 많았으나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협회를 신용하고 격려의 성원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이때 나는 광고주로서 당시 굴지의 사료회사이며 가장 광고료가 많았던 군산 第一飼料會社를 방문하기 위하여 호남선 야간열차를 타고 군산까지 내려간 일도 있다.

### 월간양계의 탄생

그동안 모금된 액수는 26 개 업체로부터 약 2 회정도 발행할 인쇄비가 모였는데 이들 중에는 양계불황에 시달리면서도 종계장과 부화장으로 부터 많은 협조를 얻었다.

1969 년 9 월에 제 1 차 편집위원회를 열고 잡

지의 편집방향과 구성 등을 논의하고 원고 청탁과 수집에 들어갔다.

초대 편집위원장에는 서울 농대의 한 인규박사가 선출되었고, 원고의 집필과 편집에 헌신적인 도움을 주었다. 편집부에는 책임자겸 말단 편집원 일까지 김 영옥씨(현퓨리회사 자금담당부장) 혼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다보니 2~3 개월간 집에도 못가고 협회책상에서 침식을 하며 지내던 일이 생각난다.

창간호 “편집후기”를 소개하면; “산모의 출산고가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들은 풍월에 불과하지만, 정말로 한편의 책을 탄생시키는 진통이 이토록 심할 줄이야……”

당시 서무를 맡아 보던 “미스 車”의 편집후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잡지를 만들면서 부터 노상 토끼눈처럼 빨갛고, 배안에는 독을 찬것처럼 허덕되고 있는 미스터 金을 보면, 원 저렇게 힘이드나 하는 생각이 든다. 「데카론 C」라는 안약을 사다주고 가끔 옥수수, 오징어도 사다 줘 보지만 여전히 미스터 金의 눈은 빨갛고, 배안에 밀빠진 독이 하나 들어있나 보다……”

월간 양계가 창간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숨은 노고가 집결되어 있었다. 특히 집필해 주신 분에게는 상당한 원고료를 지급하여야 했으나 초창기에는 무료봉사로 귀중한 글을 써 주었다.

### 월간양계에 대한 비평

“월간양계”는 그간 양계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발전되어 성년의 기상과도 같이 자라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본 잡지를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수고하신 분들과 육성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창간당시에는 본문이 50~60 페이지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5 年代에는 120~130 페이지로 5 년만에 지면이 배가 되었으며 다시 5 년이 지난 1980 年代에는 180~190 페이지로 증면되어 14 년만에 3 배의 성장을 하였다.

지면만 증가된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기사가 다양화하고 또한 기사의 질도 크게 향상된 것을 엿볼 수 있다.

양계잡지로서 “월간양계”는 양적(量的)으로나 질적(質的)으로 손색없는 면모를 갖추고 발간되고 있으나 육심삼아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격으로 몇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한국형양계산업을 정착시키는데 선도적 기수역할을 과감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자료나 기사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거나 채란양계와 브로일러양계 분야에서 고소득농가의 경영실상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과 경영방법을 소개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계사건축과 설계에 있어서도 경제적이면서도 노동성락적이며 위생적인것 등을 소개하여 새로 계사를 짓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양계가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될것이다.

그리고 계란과 닭고기의 소비홍보와 생산자에게는 하나의 상품을 소비자기호에 영합할 수 있는 건전식품을 생산하도록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시장정보에 대하여는 그간 많은 계도를 한 바있고, 또 하고 있으나 축협외 관측사업과 연관하여 생산과잉을 알리고 적정규모를 유지하도록 계속적인 계몽과 지도가 요망된다.

기사는 정밀히 요구되듯이 행정부나 업체에 대하여 올바른 일과 그릇된 일은 칭찬과 채찍질을 매섭게 하여 양계인의 대변자로서의 기능도 게울리 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월간양계”가 그동안 쌓아 올린 업적과 노고에 대하여 敬意를 표하며 계속적인 發展있기를 축원하는 바이다.

모든 양계인이 뜻을 모아  
유통체제 확립하자



- 태남산업 경기 광주 3,000수처리능력/시간
- 신미식품 대구직할시 6,000수 "
- 호성식품 경기 안양 4,000수 "
- 유성브로이라 경북 대구 3,000수 "
- 덕림산업 전남 광산 2,000수 "
- 귀하가 여섯번째 Meyn 가족입니다.

**MEYN** 도계기의 베스트 셀러

## 과학축산시스템

서울 · 성동구 능동 246-10  
☎ (445) 0212, 1886